



처분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직장에 문제를 알렸는데 명예훼손 고소, 민원 제기와 공개 유포를 구분하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혐의없음

비공개 민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구분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우편번호/06594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1301 전송/02-53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20. 9. 9.
수 신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 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가. 명예훼손
⑥ 처 분 검 사	
⑦ 처 분 년 월 일	2020. 7.
⑧ 처 분 요 지	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관한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원 내용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직장 내부의 문제를 알리려던 일이 오히려 자신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퍼뜨린 상황인지, 제한된 민원 절차에서 제출한 내용이 확인 과정 중 전달된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민원은 비공개로 접수되었고, 내용이 전달된 경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공개적으로 내용을 전파하려 한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민원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민원인의 전파 의도까지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으며 이후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민원은 비공개로 접수되었고, 내용이 전달된 경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말과 글이 사건이 되어 돌아왔다면, 당신의 편이 필요합니다.

동료에 대한 직장 민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해울은 무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직장에 동료의 문제를 알렸다가 고소당했다면?
- 비공개 민원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 징계를 요청한 일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의 대응

법무법인 해울은 직장 민원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비공개 민원의 성격과 확인 절차 중 내용이 알려진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개 유포를 목적으로 한 발언과는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모든 전달 과정의 책임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라는 실제 행위의 성격을 형사사건에서도 분리해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04 처분 결과와 의미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장에 민원을 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직장 내 문제를 보고하거나 징계를 요청한 뒤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달 범위와 경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제 제기와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나누어 다룬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동료에 대한 직장 민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해울은 무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동료에 대한 직장 민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사건. 해울은 무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인사팀에 보낸 제보가 형사문제가 되었다면?
- 내부 조사 중 전달된 말로 책임을 추궁받는다면?
- 공개 게시와 비공개 신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